

# 후기세속화 시대, 종교재소환의 조건에 관하여

##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백광훈 (을지대학교 교목)

- I. 들어가는 말
- II. 21세기 전후반 사회 문화적 변화 맥락과 한국교회
  1.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 신앙 구조 간 갈등
  2. 시장적 상황과 교회의 세속화
  3. 민주주의의 보편질서화: 소통구조의 변화와 교회의 문화 지체 현상
  4.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교회의 감각 부재
- III. 후기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 속 종교 재소환의 맥락들
  1. 확실성의 자원으로서의 종교
  2. 합리적 선택이론
  3. 공동선(common good)추구와 종교의 귀환
- IV. 문화변동과 교회
  1. 문화 변동과 교회
  2. 미국교회와 문화변동
- V. 문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교회
- VI. 후기세속화 시대의 교회됨의 양상들
  1. 교회론의 확립: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
  2.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3. 교회됨의 실천으로서 제도(institution)를 형성하려는 교회
  4. 공적 자원으로서의 '초월성' 감각 제공
- VII. 나가는 말

---

• ABSTRACT •

---

On the conditions of religious resumption in the era of  
post-secular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church that pursues the  
common good

Prof., Baik, Gwang Hun(Eulji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Korean church become a public church as a condition for church revival in a crisis situation. The crisis in the Korean church is being captured in various contexts, but it can ultimately be said to be a crisis of publicness. At the same time, globally, people still need religion in the so-called post-secular era. Additionally, sociologists such as Habermas, Casanova, and Hunter say that a revival of religion is possible when the church plays a public role in social 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tasks of the Korean church are (1) a church that pursues the common good, (2) the sovereignty of God that must be applied in the realm of common grace, (3) a church that seeks to form an 'institution' for all, and (4) a church that provides a sense of 'transcendence.'

**Key words:** Post-Secular Society, Public Theology, J. D. Hunter, Common Good, Korean Church

---

##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 양상들을 여러 차원에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인수의 지속적 하락, 젊은 층의 교회 이탈, 목회자 지원자수 급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신뢰도 약화와 대사회적 영향력 상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 대중들이 보이는 혐오나 적대적 반응들은 교회가 처한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드러난 일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미숙한 대응, 그리고 정치적 의제에 대해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정파성과 과몰입 현상은 이러한 한국 교회의 위기양상을 심화시키고 가속화시킨 중요한 원인이라 할 것이다.<sup>1)</sup> 이러한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과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서 교회공동체의 성장 동력 상실과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마5,13-14)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신앙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인 교회됨의 맥락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채 천국만을 소망하는 사적 결사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신앙의 본질과 교회됨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한국교회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작동하였고 1980년까지 한국교회가 사회문화 전반의 발전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기능하였음은 여러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 이창호, 임성빈, 박정관, 백광훈, 장민식,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1), 19-30.

하지만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역사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래, 물질주의의 심화, 민주화된 사회와 탈동조화 된 교회 거버넌스의 양상들, 이에 따른 교회문화의 계도화 및 교회 공공성의 위기로 급속히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회 위기를 둘러싼 위기 현상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수렴한다면 일종의 세속화(secularization)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가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단 아래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오늘의 세속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응답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세속화의 징후들을 먼저 경험한 서구의 경우를 보면서 세속화는 반드시 종교의 쇠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기독교회의 부흥이 실증적으로 가능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터 버거(P. Berger)가 말한 매개 구조(mediating structure)를 비롯하여, 기독교 본연의 영적 차원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근대화가 만들어낸 공론장이라는 공공의 광장에 머물면서 공동선(common good)을 증진시키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재소환될 수 있다는 후기 세속화론(post-secularization theory)의 통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 오늘날 교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론의 전환이 요청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공공 신학적(public theology) 관점에서 공적 감각과 소명을 지닌 신앙인을 길러내고 공적 교회로서의 교회 조직을 구축하고, 사회문화 발전의 촉진자로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적 교회됨은 제임스 헌터(J. D. Hunter)가 말한 일종의 사회문화적 제도(institution)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문화적 제도로서의 교회는 사회 문화적 제도가 지닌 문법을 공유하

는 것이며 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촉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사회문화적 제도의 촉진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한 힘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힘의 행사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힘의 실천이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태도이자 결과로 드러나야 한다. 이를 통해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후기세속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부흥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후기세속화 시대, 교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 특히 공공성의 차원에서 교회의 과제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1세기 전후반 한국교회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할 것이다. 이후 후기세속사회 속에서 교회의 당위적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론의 확립, 2. 일반은총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3. 교회됨의 실천으로서 제도를 형성하려는 교회, 4. 공적 자원으로서 '초월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교회됨을 향후 과제로 제안할 것이다.

## II. 21세기 전후반 사회 문화적 변화 맥락과 한국교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질문을 달리 하여 한국 교회는 사회발전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 발전'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의 약화는 한국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인 수 감소에 따라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공적 담론장에서 종교적 담론의 원천적인 소외 현상, 이에 따른 공론장의 다양성 및 건강성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이는 사회

발전 담론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안내자요 개인과 집단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로서, 기독교의 영향력 감소는 한국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 위기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교회 신앙 구조 간 갈등, 물질주의적 내재성 강화와 기독교 본연의 초월성 상실, 사회정치적 차원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교회 문화의 계도화 현상,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공적 교회됨의 부재 현상이 그것이다.

### 1. 포스트모더니즘과 교회 신앙 구조 간 갈등

오늘 한국 교회가 자리한 변화의 맥락의 중추에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자리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시작된 탈근대적 운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 규범의 해체를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이며, 데카르트(R. Descartes)식의 ‘명확하고 의심할 수 없는 이성’에 기초한 보편적 근대적 진리관에 대해 도전한다. 이는 근대성이 기초하고 있는 이성, 남성, 서구, 종교, 전통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다원성에 대한 관심과 선호,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이어지기에 절대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제의 해체와 다원성, 상대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큰 저항으로 이어진다. 서구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을 한국적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 문화의 장에서 90년대 이후 문학, 사상, 영화, 대중문화 등의 영역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포스트모던이라는 탈근대적 사조는 현실성 있는 사상들을 제공하여 오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유일성과 절대주의는 더 이상 매력적인 해석틀로 기능하지 못하고 때로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신념으로 간주됨으로서 그 사상적 소구력을 상실하고 있다.

김은혜는 현대인들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세례를 받으면서 제도적 혹은 교리적 기독교를 떠나고 있다고 보면서, 현대 기독교가 새롭게 부상하는 영적이고 종교적이며 포스트모던적인 문화 변화를 반영하는 이른바 기독교적 인간주의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독교에 한계를 느끼는 젊은 세대들의 탈기독교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sup>2)</sup>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음세대 신앙잇기라는 난제의 사상적 기저로 작동하고 있다.

## 2. 시장적 상황과 교회의 세속화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상황에서 절대성이라는 근대적 개념은 그 지위를 급속하게 잃어버린다. 경쟁하는 모든 세계관들이 상대화되면서 독점적이던 종교적 전통 역시 탈독점화된다. 이는 종교영역의 시장화를 함의한다. 한국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다종교사회적 맥락(유교, 불교, 신흥종교, 심지어 이단 사교 등이 활발하게 공존하는 상황)은 이러한 시장적 구조를 강화한다. 이는 종교적 내용이 경쟁시장에 내몰리면서 대중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세속화(secularization)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세속화란, 종교가 일종의 종속변수로서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문화의 상품화(commodification)라는 메커니즘이 종교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sup>3)</sup> 상품화 현상은 종교를 물건을

2) 김은혜, “기독교 인간주의에 대한 성찰: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한 신학적 응답,” 『선교와 신학』 33(2014), 217-219.

고르는 것처럼 개인적 선택이나 선호의 문제로 축소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종교가 사적 영역으로 축소되거나 퇴거하는 현상은 개인과 사회가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현상으로 드러난다.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는 교회 공동체가 증언하는 복음이 개인적인 심리나 사적인 욕망 해결의 문제로 전이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의 온전성을 실천하고, 복음적 가치를 담보한 하나님 나라 형성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공동체의 사회적 비전이 해체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교회의 세속화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다.

### 3. 민주주의의 보편질서화: 소통구조의 변화와 교회의 문화 지체 현상

21세기 한국사회에 있어 민주화는 보편적 사회질서로 기능한다. 개인과 집단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자신이 소외되지 않기를 원한다. 민주화란 절차적 정당성으로서의 민주화를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시민의식의 주체성의 발현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SNS,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 발달, 상호/다중 소통의 성격을 지닌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의 전환은 대중, 개인, 시민의 주도성을 강화시킨다. 시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은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주체성을 강화시킨다. 이는 오늘날 공동체와 사회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상당부분 배제되었던 이들, 예를 들면 여성들의 목소리 찾기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리더십 구조를 지닌 한국교회에 있어 이는 개혁의 과제로 여전히 머물고 있다. 보편화된 민주적 질서는 교역자와 소수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를 요청한다. 일부

3)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1981,) 158.

리더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는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는 평신도를 비롯한, 여성, 청년, 교회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구조적 참여 보장이 라는 거버넌스 개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sup>4)</sup> 문제는 여전히 교회 거버넌스 변화가 더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회의 문화 지체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시대정신과 유격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4.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교회의 감각 부제

오늘날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교회는 광장가운데 있다. ‘광장’이라는 비유는 교회가 자리한 위치가 공적(public) 장소임을 함의한다. 공적 광장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며 한 묶음의 연관된 가치들과 진리 주장들의 각축장이다. 이곳은 전통, 시장, 문화, 자연과학, 종교로부터 이끌어내어진 다양한 원칙과 자원들로 구성된다. 동시에 종교는 광장이라는 다원사회 속에 위치함으로 광장의 작동원리로서의 언어와 문법, 원칙, 윤리를 요구받는다. 그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때 종교로서의 교회는 광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공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는 공공성의 위기와 갈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시민사회와 교회 간 갈등에서 보았지만 주일성수라는 교회 내적인 당위논리와 공공의 안전성이라는 아젠다가 불필요하게 충돌하고, 특별히 코로나19사태에서 교회지도자와 신앙인들이 보여준 공적 언행의 부적절함, 일부 대형교회에서 발생한 목회지 세습처럼, 교회 안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것들에 대한 사회적 불인정 등은 교회 계토화를 촉진시키고 교회에 대한

4)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130-132.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 약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 III. 후기세속사회(post-secular society)속 종교 재소환의 맥락들

교회를 둘러싼 맥락들의 변화와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일종의 세속화(secularization)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속화란, 교회 공동체의 양적 성장이 멈추었거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상실된 상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의식 차원 모두에서 종교적 영향력의 쇠퇴를 의미한다.<sup>5)</sup> 세속화론의 효시이기도 한 막스 베버(M. Weber) 이후, 주류 사회학자들에 의해 계몽화된 근대화 이후 종교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세속화 이론이 광범위하게 지지되었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쇠락과 소멸의 길을 갈 것이 분명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속화론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론에 적합하지 않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근대화된 세계에서도 여전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이 건재하고 있으며, 양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더욱이 종교는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종교가 사회 발전의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세속화론의 예언을 폐기하고자 하는 이른바 탈세속화론, 혹은 후기 세속화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종교는 여전히 개인의 정체성 영역

5) Peter Berger,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김덕영·송재룡 역, 『세속화나 탈세속화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

6) 세속화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세속화론의 한계가 단지 종교의 재발흥이 아니라 마틴(D. Martin)의 주장처럼 세속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속도와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보는 세속화 비판론도 존재한다. David Martin, *A general theory of secularization* (Harper & Row; 1st Harper Colophon Edition), 1978.

에 있어 ‘확실성’을 담보하는 자원으로 소환되고 있으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종교,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재소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1. 확실성의 자원으로서의 종교

한 때, 세속화론의 전도사이기도 했던 피터 버거(P. Berger)는 세속화론을 전폭적으로 수정한다. 그는 이전에 주장했던 세속화 테제, 즉 종교의 영향력 감소를 주장했던 예측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속에서 종교적 삶은 지속되거나 오히려 부흥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여전히 종교는 그 존재 기반을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그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종교 부흥 현상들(이슬람의 증가, 동아시아, 남미,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중심의 복음주의의 급속한 증대 현상)을 보면서 종교적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종교 재소환 현상의 이유로, 종교가 제공하는 ‘확실성’을 꼽는다. 포스트모더니티가 제공해준 거대한 사상적 토대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실존적 불안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종교운동들은 여전히 큰 호소력을 갖는다는 것이다.<sup>8)</sup> 특히 초월적 지평을 상실한 근대 이후 포스트모더니티 사회에서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해주는 종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실사 세속화론적 관점에서조차도 종교는 사회발전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 세속화에 대한 반응은 모더니티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이슬람), 동시에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라틴 아메리카의 복음주의 기독교

7) 위의 책, 36.

8) 위의 책, 27.

교가 남성우월의식과 위계서열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제 정치, 전쟁과 평화, 경제 발전, 인권 및 사회정의의 영역에서 여전히 종교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sup>9)</sup>

## 2. 합리적 선택이론

지난 50년간 종교적 다원주의와 과학적 세계관의 지배로부터 종교적 정당성이 의심받고 설득구조가 약화되었다는 주장들은 사회적 변화들을 설명하는 기초로 의심없이 받아들여졌다.<sup>10)</sup> 그러나 또 다른 사회적 현실들은 종교적 현실들이 매우 복잡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 개신교나 아시아 이슬람권에서 근본주의적 교단들의 성장, 남미에서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은 가톨릭 종파들(charismatic Catholicism)과 복음주의적 개신교 교단들의 성장, 아프리카, 중국 및 구소련 국가들 내에서 기독교의 성장 등은 세속화이론의 경험적 한계를 반증하는 사례들이 되고 있다.<sup>11)</sup>

사회적 합리화과정과 부정적 상관성을 거의 맹신적으로 연결짓는 계몽주의의 적자로서의 세속화이론이 근대화 모델을 기초로 사회의 종교적 진화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합리적 선택이론은 도시화, 산업화, 개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를 포괄하는 현대사회의 특수성과 종교 간의 ‘선택적 친화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2)</sup> 확실성의 자원으로서 종교가 소환되고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종교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들에게 여전히 소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가장 최근 국가 통가인 2015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 비율이 이전 조사

9) 위의 책, 72

10)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종교적 수요의 안정성 논쟁,” 『담론 201』 16/2(2003), 49-73.

11)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 『21세기 종교사회학』 (서울: 다산 출판사, 2014), 131.

12) 위의 책, 131.

에 비해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 이 점에서 세속화론의 탈종교화현상이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부분도 엿보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제도종교에 대한 관심의 저하현상인지 아니면 탈제도화된 종교, 이른바 영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인지는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sup>13)</sup>

### 3. 공동선(common good)추구와 종교의 귀환

세속화론에 근본적인 물음을 가진 호세 카사노바(J. Casanova)는 그의 책 『근대 세계에서의 공적 종교』(*Public Religion in the Modern World*)에서 세속화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사회학적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세속화는 하나의 도그마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섯 케이스(스페인, 폴란드, 브라질,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와 미국 가톨릭에서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참여 증대와 공공 생활로의 회귀)를 통해서, 근대화의 대표적 현상인 사회적 분화(social differentiation)과정에서 종교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종교의 세속화 양상은 들어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종교의 쇠락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적 자유라는 근대적 가치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근대사회가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공적인 목소리를 낸 종교는 살아남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 미국 가톨릭 주교회가 ‘경제 서한’ (U.S.

13) 실제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펴낸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18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18』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종교인구는 종교인 대 무종교인의 비율이 2004년에 57.0:43.0, 2012년에 55.1:44.9, 2017년에는 46.6:53.4 등으로 제도종교인구의 감소추세로 확연히 나타나기도 한다. 동시에 우혜란은 한국적 영성의 독특성을 영성적 형태를 띠고 있는 신종교의 활성화 맥락에서 해석하기도 하는데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형태로 ‘명상’, ‘심신훈련’, ‘요가’, ‘단월드’, 이단 종파 등의 증가를 그러한 예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제도종교가 아닌 영성적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혜란, “동시대 종교현상으로서의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에 대한 논의,” 『종교와 문화』 30(2016), 45-46

Catholic bishops letter, 1986)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세속화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선(common good)의 가치를 제안하는 교회는 사회 공론장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sup>14)</sup> 종교는 근대세계의 가치와 원리들의 정당성, 즉 개인적 자유와 제도적 분화라는 근대의 시금석을 응용하고 지지하면서 동시에 특히 시민사회와 연합하여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고,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어 줌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프랑크푸르트학과 좌장으로서 현대 서구 계몽주의적 전통의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버마스(J. Habermas) 역시 세속화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하버마스의 역시 피터 버거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상 초기엔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서구 근대사회의 위기를 절감하며 종교의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미 2004년에 라칭어(Joseph Ratzinger) 추기경과 함께 뮌헨 가톨릭 아카데미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교류했다.<sup>16)</sup> 하버마스는 현대 자유주의 국가가 정치적 결정을 신앙이 아닌 순전히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세속화 이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회소하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자원, 즉 삶의 의미에 대한 ‘감각’(기독교적 용어로서, ‘죄’)을 잃을 위험에 처한 ‘후기 세속사회’(post secular society)에 대해 말하면서, 시민 대중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험으로서의 삶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는 ‘의미’를 추구하려는 종교

14) José Casanova, *Public Religion in the Modern World*, Univ. of Chicago Press, 1994.

15) 폴란드 자유노조(Solidarity)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가톨릭교회, 독일에서 시민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준 독일 교회의 예도 이러한 경우다. David Martin, *On Secularization: Toward a Revised General Theory*, 김승호 외 역, 『현대 세속화 이론』 (서울: 한울, 2008), 55.

16) Joseph Ratzinger & Jürgen Habermas, *The Dialectics of Secularization: On Reason and Religion*, 윤종석 역, 『대화: 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경』 (서울: 새물결, 2009).

적 본능이야말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이며 이점에서 인간이 삶의 의미에 대한 감각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적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 되, 시민사회와 종교는 서로가 개방되어야 하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종교 공동체가 도그마티즘에 빠지지 않는다면 현대인의 삶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7)</sup>

이러한 주장들에서 보듯 근대 사회 이후 종교의 쇠락을 예견한 세속화론의 예언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전히 종교는 자아정체성을 구성하는 유의미한 자원임을 주목하는 것이다. 더불어 동시에 종교에 기대하는 역할, 예컨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를 지양하고 공동선 증진을 위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줄 때, 종교 재소환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문화변동과 교회

후기 세속사회의 맥락 속에서 종교의 재발견, 특히 기독교 재부흥을 위한 조건들에 대한 통찰들은 기독교의 정체성, 특히 교회론에 대한 변화된 이해를 요청한다. 후기 세속화론의 통찰은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며 현대인의 정신과 정체성에 있어서 이른바 확실성의 토대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교회의 영향력은 급속히 유실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교회의 공적 역할은 교회가 세상에서 유리된 게토화 된 종파가 아니라 산 위의 등경처럼(마 5:15) 세상 한 가운데 존재하여 세상의 변역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한다. 이는 교회가 세계의 공적인 자원이며 사회의 건강한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이점에서 미국의 사회 문화 변동과 교회와의

17) 위의 책, 30

역사적 관계성을 추적한 제임스 헌터(James D. Hunter)의 주장<sup>18)</sup>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문화 변동과 교회

1990년대, 문화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교회가 시도했던 문화변동에 대해 연구해왔던 제임스 헌터는 미국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여 온 사회변화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교회가 세상(적어도 미국사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그 자체로 권력이자 제도적·조직적 관점에서 하나의 상징적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상징은, 사상, 상상력, 뉴스, 선언, 연설, 소책자, 에세이, 책, 영화, 미술, 법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동시에 문화는 네트워크 내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변화, 문화의 변동은 얼핏 개인의 힘과 위대성에 의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는 아래에서 위로도 변하지만, 많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 변한다. 또한 세계 변혁의 집중력은 엘리트들의 네트워크와 그들이 주도하는 제도들이 중첩될 때 극대화된다. 요약하자면 문화의 중첩된 분야와 사회생활의 중첩되는 영역에서 엘리트들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자원과 하나 되어 공통된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문화는 변동한다.<sup>20)</sup> 문화 변화는 가장 개념적이며 비가시적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 작품을 생산하는

18) James, D. Hunter, *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Modern World*, 배덕만 역,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19) 위의 책, 65.

20) 위의 책, 76.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sup>21)</sup> 문화의 가장 심오한 변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회질서의 언어적·신화적 구조 속으로 침투할 때 최초로 감지된다.<sup>22)</sup>

이것은 문화 변화를 지향하는 운동이 문화 형성 및 전달, 제도들(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시장과 정부가 후원하는 문화 조직, 교육, 광고, 오락, 출판, 뉴스미디어)을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문화 재구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23)</sup> 즉 모든 문화 운동은 문화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문화 전체의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와 집단의 부흥운동이 현재의 문화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기 기독교의 성장, 6세기 7세기의 수도원 운동, 종교개혁, 대각성 운동, 노예 해방 운동은 교회가 상층부 네트워크들을 통해 교회 자체와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예들은 문맥, 행태, 상관관계가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가 농도 짙은 대안적 네트워크로 대안문화를 상상하고 이론화하고 전파하는 지성인들과 교육가들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24)</sup> 헌터에 따르면 기독교는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문화의 저변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2. 미국교회와 문화변동

문화와 문화 변동에 대한 이러한 전 이해 속에서 헌터는 미국교회가 미국의 문화 변동을 위한 지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교회는 세속화 사회 속에서 사회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위치에

21) 위의 책, 74.

22) 위의 책, 79.

23) 위의 책, 79-80.

24) 위의 책, 124.

있기 보다는 여전히 주변화 되어 있다. 진(지식) 선(도덕), 미(예술)의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상층부가 아닌 약한 문화로 머물러 있다. 헌터는 그 이유로 미국 교회의 비전이 공적이지도 않으며 그만큼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sup>25)</sup>

문제는 미국 교회가 문화 주변부에 위치할수록 이것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미국의 우파 기독교는 미국적 상황에서 기독교가 오늘(특히 1960년대 이후 세속화된 상황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이른바, 문화전쟁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국의 기독교문화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앙회복과 도덕운동, 그리고 정치적 입법 활동에 희망을 두고 있다. 미국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유대-기독교적 가치를 보존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신앙의 비전을 개인의 도덕 문제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헌터는 비판한다. 보수우파는 예컨대, 낙태, 포르노의 성장과 합법화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이다. 헌터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우파 운동이 젊은 세대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왜곡시켰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우파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이들은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의 권리 등을 주장하며 사회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의 본류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역시 정치이며 보수파가 공화당과 밀월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25) 위의 책, 142.

26) 위의 책, 194.

맺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에 대한 개입과 영향력에 대한 열망은 기독 우파와 마찬가지로 열렬할 수밖에 없다.

헌터는 기독 우파와 좌파 모두가 감행하는 이러한 시도들, 정치권력, 즉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콘스탄티누스적 기획’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 권세를 지녀야 한다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선포하는 대신 강제력과 힘, 폭력의 윤리를 수용하게 된다고 비판한다.<sup>27)</sup> 헌터는 이러한 정치적 힘에 대한 과몰입이 미국 기독교를 병들게 했으며 설사,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 기독교는 문화를 바꾸는 제도적 상층부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한다.

헌터의 논의를 한국교회와 사회에 적용하게 될 때, 이러한 콘스탄티누스적 기획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재현되곤 한다.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히 상실되는 후기세속화시대의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교회가 1990년대 이전에 지녔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거나 기독교를 표방한 당을 만들고 입법화 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자신들의 미래를 특정한 정치 신화, 이념, 아젠다의 성공에 연결시키려고 한다.

한 마디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과도한 의제설정과 영향력 확대가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교회됨의 실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아젠다 설정의 편중을 낳는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정치 변화에 대해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지

27) 위의 책, 233-34.

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의 장으로서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환경, 대중문화, 예술 영역 전반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의제 확장에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설사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치영역을 바꾸고자 정치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권력 추구하고 실천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정치인 그룹에서 신앙인의 비중은 많지만 오늘날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은 매우 크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광화문과 같은 서울 도시의 광장에서 정치/정파적 구호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한국사회 문화변화를 위한 문화지형의 매트릭스 속에서 미국교회와 같이 여전히 상층부가 아닌 하층부 혹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공적 교회로서 진, 선, 미 영역에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젠다 설정 능력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후기 세속화의 맥락 속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 재소환을 위한 의제 설정에 실패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 V. 문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교회

교회는 후기세속화 논의에서 밝힌 대로 종교의 부흥 혹은 재발견의 조건으로서 공동선의 실천의 과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선의 실천은 한마디로 제도의 변화와 문화를 형성하는 교회로서 기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을 일종의 권력(power)라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지니고 추구해야 할 권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요청된다.

기독교는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힘과 권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권력은 푸코(M. Foucault)가 이야기 하듯듯이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권력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인간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sup>28)</sup> 인류학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거나 독립되어 살지 않는 한, 교회와 신자들은 거의 모든 방법으로 권력의 행사, 교환, 경쟁에 연루된다고 말한다. 권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실체나 자산(property)이 아니라 자연세계 및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재능(facility)이다. 이 재능은 개인, 사회집단, 사회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정부나 시장 제도뿐 아니라 모든 제도 속에 존재한다.<sup>29)</sup>

문제는 어떤 권력이며, 누구의 권력이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내린 문화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sup>30)</sup>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세상을 가꾸고 번영케 하는 권력 행사의 명령이다. 이 문화명령에 비추어 볼 때 그 권력은 정치적 다스림으로 나타난다.

문화명령을 실천한 온전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섬기는데 사용하였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sup>31)</sup>고 예수는 주장하였는바, 이는 권력이라는 힘의 외투를 추구하는 방식을 주장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예수는

28) Michel Foucault,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I*, 이규역 역,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서울:나남, 2010).

29) James D. Hunter,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69.

30) 창 1:28

31) 마 20:25-28

십자가를 통해 세상권력을 무장해제 시켰고 그 권력에 대해 승리하였다. 이 점에서 교회는 예수의 권력 사용방식을 실천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 권력은 하나님과의 친밀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지위와 명성, 그것에 수반된 특권을 거절하는 것이다.<sup>32)</sup> 예수의 권력은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다루는 비강제적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의 나라는 편견 없이 모든 남자, 여자, 청년, 노인, 주인, 노예, 자유민,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주어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은 단지 신앙 공동체의 선이 아니라, 만인의 선을 추구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을 따르는 교회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언약적 관계와 제도, 문화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함의한다.<sup>33)</sup>

이는 먼저 교회 스스로 언약적 관계를 실천하고 하나의 제도(institution)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교제, 모임이지만 동시에 제도이기도 하다. 제도 안에는 본질적으로 권력이 내장되어 있다. 교회는 자신의 조직 내에서 상징적이고 실제적이며 관념적이고 물질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교회 안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적 훈련과 교육을 통해, 교회가 가진 자원을 교회 안팎에 분배함으로 그렇게 한다. 이 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를 구축하는가는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몇 년 동안 주목받고 있는 ESG 논의에서 언급되는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조직을 기업 소유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포함하는 건강한 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는 제도로서의 교회 역시 건강한 거버넌스를 지니게 될 때, 제도적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것이다.

32) James D. Hunter,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83.

33) 위의 책, 390.

또한 제도가 지닌 권력 행사의 속성은 교회를 둘러싼 더 큰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난다. 소극적으로는 교회들이 보여준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제도로서의 교회는 문화 형성(formation)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단지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목적, 진리, 미, 소속, 공평을 육성하는 것이다.<sup>34)</sup> 교회됨의 목적은 비신자들이 천국에 가도록 전도하고 회심시키는 노력 그 이상의 것을 지향한다. 진, 선, 미라는 각각의 영역 속에서 변화를 이끄는 위치를 확보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어야 말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후기 세속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 VI. 후기세속화 시대의 교회됨의 상상들

문화형성의 촉진자로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교회론의 전환을 요청한다. 오늘날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교회의 공적 발언은 매우 정치적이고 특정 정파에 함몰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와 문화, 특정 정치집단에 대해 갖는, 니체식 표현에 따르면 일종의 ‘르상티망’(ressentiment, 유감 혹은 분노)<sup>35)</sup>에 기반한 교회의 공적 참여는

34) 위의 책, 390.

35) Friedrich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a polemic*, ed. Keith Ansell-Pearson, trans. Carol Dieth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887])(1994 [1887]), §1.10, I.13-15, III.19, III.26-27.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은 일종의 삶의 비애감으로서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어 마음속에 쌓인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때론 정치적 행동의 동기로, 분노, 혐오, 보복의 감정이 결합한 정치 심리학의 한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피해 의식, 혹은 권리 의식으로서, 자신들이 받은 상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부정적 담론 일체를 일컫는다. 교회공동체의 경우, 현재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의 이유를 특정 집단 혹은 사상에 있다고 보고 그 개인이나 집단에 갖는 부정적 감정 일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James D. Hunter,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65-167, 참조.

그런 의미에서 매우 퇴행적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 교회와 유사하게, 한국교회 역시 오늘날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박탈당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룬 시대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다시 행사해야 한다는 회귀적 열망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공동체는 오늘날 다원성의 광장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선과 정의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이해로 간주되는 세계관을 사회 전체에 강요한다고 인식된다. 이는 권력과 외투를 입고 정치를 통해 기독교와 국가 권력을 결합시킴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는 제국적 종교로의 유혹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교회의 경우 서구 유럽교회와는 달리 기독교와 세속권력이 밀착, 일치되었던 크리스텐덤의 위치를 구현하진 않았지만 기독교가 이른바 중국교회적 지위에 근접하였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진보적 교회의 산파 역할이 컸으나 동시에 근본주의 혹은 보수적 성격을 지닌 교단과 보수 우파 정권과의 우호적 관계가 교세 확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사회문화 중심부와 상층부에 일시적이거나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sup>36)</sup>

이러한 경험 속에서 1990년대 이후 벌어진 다양한 위기현상들, 예를 들면,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정부와 교회와의 갈등,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각종 스캔들, ‘가나안 성도’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교회 이탈 현상과 교세 감소현상은 기독교계의 위기를 증폭시켰고 특히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낮은 지지도와 탄핵 사태, 교회에 비우호적이라고 인식되는 진보정부의 연이은 등장으

36) 배덕만, “신학적 근본주의에서 정치적 근본주의로,” 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21), 217.

로 인해 상실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교회의 위기의식을 더욱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과제로 일부 기독교계의 광장 집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한국 교회는 위기의 맥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교회공동체는 정치적 사회적 아젠다에 독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으며 그리해서도 안 되는 세속화된 다원사회의 지형을 직시하고 현대사회의 광장에서 교회의 공적 개입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진정한 교회됨의 실천 방식을 성찰하게 하며, 보다 겸손하고 자기 성찰적인 응답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교회공동체가 지닌 정체성을 나누는 공적 참여를 통해 사회공동체의 발전과 진보를 가능케 하는 종교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후기 콘스탄틴적 교회(Post-Constantinian Church)로의 전환을 요청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앙인과 교회의 신실한 현존(faithful presence)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신실한 현존을 구현하는 교회는 세상을 바꾸어놓고 말겠다는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이 이루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권력의 방식을 일상의 제도와 문화 속에 형성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37)</sup> 그것은 교회가 구원을 위한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 공동체인 동시에 공공을 위한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됨을 함의한다. 오늘날 다원화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됨으로서, 21세기 세속화된 맥락 안에서도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교회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

37) James D. Hunter,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334.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회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네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 1. 교회론의 확립: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 위에 신앙과 삶을 세우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의미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자신이 지닌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일 수 있을까. 그것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사적인 영역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할 공적인 영역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복음적 신앙과 신앙의 공공성을 담보하여야 한다.<sup>38)</sup>

볼프(M. Volf)는 오늘 교회는 광장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도와 교회는 세계화된 맥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경전과 전통 가운데 살아가는 다원적 상황에서 어떻게 타자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는 많은 행위자중 하나이다. 이러한 다중적 현실에서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정체성을 실천하면서도 기독교의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고쳐가야 한다. 그것은 공동선을 위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며 기독교적 정체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전 존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됨은 성만찬을 경축하기 위해 모여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을 위해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문화와 사회의 모든 차원과 연결되어 있으며,<sup>39)</sup> 교회는 그

38)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137.

39)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위치가 중심부든 주변부든 그곳에서 인간의 번영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sup>40)</sup>

## 2. 일반 은총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교회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생태 등 모든 영역 속에 신앙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한 일반은총의 영역이다.<sup>41)</sup> 우리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영향을 논할 때 자연과 은총을 대립 구조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카이퍼(A. Kuyper)의 경우 자연과 은총의 관계를 창조와 재창조 사이의 형태로 구별하려고 하였다. 자연이라는 피조세계가 타락 후 저주받았지만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은총에 기인한다. 반면에 ‘재창조’는 특별은총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물들을 제어하기도 하고 재창조하기도 한다. 인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일반은총의 지속적인 작용의 결과이다. 이러한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 카이퍼에 따르면 특별은총을 받은 이들은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일반은총의 영역을 개발함으로 사회발전을 이루어가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sup>42)</sup>

한국 교회가 지닌 이원론적인 경향성은 성과 속, 혹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계도화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영역을 교회 안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게 하였다. 이 점에서

142.

40) 위의 책, 120.

41) Vincent E. Bacote, *The Spirit in the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5), 108-110.

42) 위의 책, 110.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해야 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인식하고 책임의 지평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할 책임의 비전은 그러나 기독교국가와 같은 크리스텐덤의 형태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상의 영역을 포함하여 진, 선, 미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 3. 교회됨의 실천으로서 제도(institution)를 형성하려는 교회

일반 은총 영역에 대해 교회가 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도적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실천하는 필수적인 모습이다. 제도라 함은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직화된 문화적 체계를 의미한다.<sup>43)</sup> 제도는 힘이 유의미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강력하고 공식적인 방법이다. 좋은 제도는 공동체 번영의 불가피한 요소이다. 이점에서 교회의 과제는 문화적 악을 제어하는 공적 권력을 가진 제도들을 강화하는 것임과 함께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강화하는 것이다.<sup>44)</sup> 이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사회적 교회됨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기독교 전통은 예술을 후원하고 학교와 대학, 병원 등을 설립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를 만들면서 오랜 동안 이 일을 해왔다. 일반 은총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적합한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예를 들면 사회복지, 환경, 교육, 예술, 학계, 사업, 공동체 형성, 도시생활 등)과,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질서 체제들(지방·지역·국가·국제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적·경제적 자원들이 교회 안에 있다.

43) Andy Crouch, *Playing God*, 김명윤 역,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 (서울: IVP, 2022), 243.

44) 위의 책, 296-297.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제도형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의 목적은 만인의 복지향상을 통한 인간 번영에 있다.<sup>45)</sup> 좋은 제도는 성도 개인 혹은 교회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무형의 제도, 문화, 거버넌스 형성, 법 제정 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제도를 형성하는 공적 교회가 됨에 있어 정치의 비신화화는 필수적이다. 일부 한국교회의 보수적 그룹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과몰입현상은 정치 참여와 공적 참여를 등치시키고 더 나아가 정치를 신화화하고 교회를 특정 정파와 동일시하게 만듦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닌 초월적 비판 지점을 상실하게 한다. 한국교회가 실행해야 할 제도적 실천이란 기독교적 국가나 법, 혹은 정당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후기 현대의 지배적 제도와 매체, 현대자본주의, 자유주의, 교육, 경제, 예술, 도덕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 저항의 자리에 있으면서(이것은 반드시 대립의 자리일 필요는 없다) 건설적인 대안과 제도를 제공하도록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나 법, 정당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참여없이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정치는 제도변화의 중요한 추진자가 되기 때문이다.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은 오늘날 세속화된 자유 민주주의가 지닌 제도적 양상에 있어 기독교와 교회의 역할이 있어왔음을 말하면서 이른바 교회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46)</sup> 성석환은 「후기세속사회의 종교성과 탈종교성에 대한 공공신학적 연구」에서,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45) James D. Hunter,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400.

46) Oliver O'Donovan,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26.

교가 지향할 종교성에 정치적 참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국주의와 독재를 거치며 형성된 시민사회와 이에 관련한 한국 기독교의 공적 역할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이에 더하여 도리어 탈정치적 성장주의나 '식민지 공공성'을 재현하려는 교회들로 인해 탈종교화 현상이나 가나안 교인들의 이탈 현상 등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sup>47)</sup> 결국 한국교회의 정치참여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치적 사명'으로서의 교회의 정치적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는 진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지배적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지하는 비판적, 초월적 대안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틀과 제도를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사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4. 공적 자원으로서의 '초월성' 감각 제공

마지막으로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종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한 확실성의 토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교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의 영역에 대한 지속적 관심은 이를 증언해준다. 물론 이것이 제도적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만 오늘날 교회공동체가 요구받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초월적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종교가 초월적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다원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강화된 현세성과, 물질주의, 불안, 위험

47) 성석환, "후기세속사회의 종교성과 탈종교성에 대한 공공신학적 연구," 『선교와 신학』 49(2019), 270.

에 처한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찰스 테일러(C. Taylor)의 주장대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종교는 공동체에 근거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8)</sup> 그런 점에서 종교가 제공하는 초월적 감각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공적 자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한 초월적 지평은 포스트모던 사회가 가져온 '의미의 해체'라는 현실 속에서 상실해버린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것은 종교가 제공하는 영성이 개인적 차원의 영혼구원에만 매몰되지 않는 일종의 참여적 초월성으로서의 공적 영성을 제공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획이어야 함을 의미한다.<sup>49)</sup> 이 점에서 한국교회가 보다 실천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성은 전인적 영성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 VII.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응답과정 속에서, 21세기에 등장한 위기의 맥락을 극복하기 위한 신앙공동체의 현실 해석의 과제와 교회론적 전환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변화된 맥락의 핵심은 근대화, 민주화, 다원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속화 현상에 있으며, 이 세속화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히 쇠퇴할 수 있게 되는 부정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세속화론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버마스나 카사노바, 찰스 테일러 등의 후기 세속화론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확실히성의 자원으로로서의 종교, 공동선의 추구하고 같은 종교 재소환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자는 이 과정에

48) Charles Taylor, *Sources of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권기돈, 하영주 역, 『자아의 원천들』 (서울:새물결, 2015).

49) 송재룡, “영성사회학, 테제의 가능성,” 『사회 이론』 44(2013), 257-291.

서 미국의 문화지형에서 교회공동체가 지니는 위상을 분석한 제임스 헌터의 통찰에 주목하면서 공적 역할에 있어 교회가 지닌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도적 교회로서의 공적 교회됨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됨의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때 교회는 권력(power)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실천해야 하며, 교회론의 전환과 개혁을 통해, 건강한 제도 형성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적 자원으로서는 ‘초월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후기 세속적 위기 속에서 교회가 충족해야 할 선행 조건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물론 교회공동체의 재소환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공동선의 추구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이유와 조건들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부흥과 존재방식을 위한 다양한 필요·충분조건들을 탐구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교회공동체의 회복과 재소환을 위한 조건으로 공적 교회됨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있다. 종교의 재소환, 혹은 회복이라는 언어가 지닌 모호성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 지표들(예컨대, 제도적 차원에서의 양적현황, 지적 차원에서 성도들이 공유하는 믿음의 구조나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의 대한 동의 여부, 기능적 차원으로서 시민 사회와 정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의 종교의 역할, 선교적 차원에서 전도와 같은 시도들의 성공 정도 등)을 통해 교회공동체가 지닌 위상의 정도와 변화의 양상들을 추적해야 할 것이다.<sup>50)</sup> 우리는 이를 통해 후기세속화시대 속, 교회공동체 재소환을 위한 다면적이면서 심층적 맥락과 조건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보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0) Brown Callum G., *the death of christian brita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xv-14.

## 참고문헌

- 김은혜. “기독교 인간주의에 대한 성찰: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한 신학적 응답.” 『선교와 신학』 33(2014), 212-240.
- 배덕만. “신학적 근본주의에서 정치적 근본주의로.” 정재영 외.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21.
- 송재룡. “영성사회학, 테제의 가능성.” 『사회 이론』 44(2013), 257-291.
- 성석환. “후기세속사회의 종교성과 탈종교성에 대한 공공신학적 연구.” 『선교와 신학』 49(2019), 249-279.
- 우혜란. “동시대 종교현상으로서의 ‘유동적 종교(Fluid Religion)’에 대한 논의.” 『종교와 문화』 30(2016), 33-65
-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종교적 수요의 안정성 논쟁.” 『담론 201』 16/2 (2013), 49-73.
- 유광석. “합리적 선택이론.” 『21세기 종교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2014.
- 임성빈.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7.
- 이창호, 임성빈, 박정관, 백광훈, 장민식.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1.
- Berger, Peter.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김덕영&송재룡 역.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_\_\_\_\_.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1.
- Crouch, Andy. *Playing God*. 김명윤 역.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 서울: IVP, 2022.
- Foucault, Michel.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I*.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서울:나남, 2010.
- Hunter, James David. *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Modern World*. 배덕만 역.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Martin, David, *On Secularization: Toward a Revised General Theory*. 김승호 외 역. 『현대 세속화 이론』. 서울: 한울, 2008.
- Nietzsche, Friedrich.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a polemic*, ed. Keith Ansell-Pearson, trans. Carol Dieth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1887]
- Ratzinger, Joseph & Habermas Jürgen. *The Dialectics of Secularization: On Reason and Religion*. 윤종석 역. 『대화: 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경』. 서울: 새물결, 2009.
- Taylor, Charles, *Sources of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권기돈, 하영주 역. 『자아의 원천들』. 서울: 새물결, 2015.
-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 Bacote, Vincent E., *The Spirit in the Public Theology: Appropriating the Legacy of Abraham Kuyper*.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5.
- Brown, Callum. *The Death of Christian Britai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 Casanova, José, *Public Religion in the Modern World*. Univ. of Chicago Press, 1994.
- Martin, David. *A general theory of secularization*. Harper & Row; 1st Harper Colophon Edition, 1978.
- O'Donovan, Oliver. *The Desire of the Nations Rediscovering the Roots of Political Th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논문투고일: 2023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3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에서 교회 부흥의 조건으로 공적 교회됨을 제안하는 데 있다. 한국 교회 위기는 다양한 맥락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결국 공공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른바 후기세속화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하버마스와 카사노바, 헌터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교회가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종교의 부흥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에 논자는 한국교회의 과제로 1.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 2.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3. 모든 이를 위한 '제도'를 형성하려는 교회, 4. 현대인들에게 '초월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후기세속화사회, 공공신학, J. D. 헌터, 공동선, 한국교회

---